

OMC해외통상

“2008 낙농인과 함께하는 날” 성황리 개최

OMC해외통상은 지난 7월 30일(수) 경기도 청북면 현곡리 소재 해외통상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낙농가 및 관련업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오엠씨해외통상, 낙농인과 함께하는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천안연암대학 김종덕 박사의 “조사료 생산의 중요성과 생산비 절감 효과”에 관한 세미나에 이어 2008년 축산농가에 공급된 파이어니어 옥수수를 비롯해 장려품종 옥수수 11개 품종과 수단그라스 및 장려품종 선발을 위해 시험 중인 옥수수 8개 품종의 포장을 견학했다.

사료작물용 옥수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즉, 수확량과 관계된 암이삭비율, 대의 굴기, 흑조위축병을 비롯한 병충해와 도복과 관련된 초장과 착수고에 관한 김종덕 박사의 설명과 더불어 품종별 특성 및 작부체계에 맞는 품종의 선택요령에 대한 열띤 설명은 무더위 속에서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외통상은 낙농가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농가의 발전과 보다 나은 축산환경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해외통상은 낙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매년 ‘낙농인과 함께하는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양사

삼양사 “제3회 고객자녀 과학캠프” 열어

삼양사 사료BU(BU장 강신우)가 지난 7월 28일 ~3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2008년 제3회 고객자녀 과학캠프”를 실시했다.

대전중앙연구소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3~6학년의 사료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하고 직접 물 로켓, 나비 표본, 리모컨 자동차 등을 제작하여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원리를 깨우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삼양사 사료 M/R팀의 임호중 팀장은 “3회째 고객자녀에 대한 과학캠프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유대관계가 좋아졌으며, 매년 충실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신청인원이 늘어나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삼양사 사료에 대한 고객의 만족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믿음, 열정, 집중으로 고객에게 보답하자!”

삼양사 사료BU(BU장 강신우)가 지난 7월 25일 대전광역시 소재 삼양사 연수원에서 2008년 목표 달성을 위한 후반기 사업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원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고객과 고통을 분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삼양사 사료 BU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신우 BU장은 “각 부서별 가치 혁신과 비용혁신을 통하여 고객에게 원가 부담을 줄이고 믿음, 열정, 집중하는 자세로 후반기 목표 달성을 총력을 다해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후반기 시장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과 생산, 지원 전략을 통한 목표 달성 결의를 다짐했으며 우수사원 성공사례 발표와 무더운 장마 속에서도 축구 및 족구를 통해 서로의 화합을 다지고 ‘08년 후반기 어려운 축산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결의도 다졌다. ☺